



이달의 포커스 뉴스

KOTRA, 베트남과 '미래 경제협력' 강화한다

- 6.22일 국민방문 연계 '한-베트남 무역상담회'와 'K-산업 쇼케이스' 개최

20P

외국중재기관의 중재판정, 베트남에서 집행은 가능할까?

28P

| | | |
|---|--------------------------------------|----------------------|
| ☑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 2 |
| ☑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 재베트남 한국 건설협회 18 |
| ☑ | <팀코리아협의체 동정> |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20 |
| ☑ | <기업탐방> | PTV그룹 최분도 회장 22 |
| ☑ | <법률> 베트남 노동법상 수습계약 및 유의사항 | 전현우 변호사 26 |
| ☑ | <중재> 외국중재기관의 중재판정, 베트남 집행 가능 여부 | 대한상사중재원 28 |
| ☑ | <통관> 베트남 통관 HOT 뉴스 |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30 |
| ☑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남단성> | 31 |
| ☑ | <이달의 보고서> 베트남 일촌일품(OCOP) 활용 CSR 참여방안 | 37 |
| ☑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 38 |
| ☑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 43 |





베트남의 대표기업 살펴보기

- 베트남의 주요 기업 순위, 탑텐의 경우 3년전과 유사
- 전자상거래업, 통신업, 부동산 건설업 등 유망 분야에 주요기업 두드러져

베트남리포트(Vietnam Report), 매년 상위 500대 기업 발표

베트남리포트 주식회사(Vietnam Report JSC, 이하 베트남리포트)와 현지 언론 베트남넷 신문(Vietnamnet Newspaper, 이하 베트남넷)은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매년 VNR500 목록을 발간한다. VNR500 순위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포춘지가 선정하는 Fortune 500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전의 수익 성장률 전망과 실제 현장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의 가장 최근 연도 실제 수익을 토대로 평가한다. 또한, 기업의 규모와 지위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소로서 총자산, 종업원 수, 세전 및 세후 이익,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s, ROA),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ROE), 미디어 평판 등의 기준이 사용된다. 매년 발표되는 연간 기업 목록은 베트남리포트의 출간물이나 웹사이트(<https://vnr500.com.vn/>)에 게시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상위 500개 기업 목록 주요 내용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옌(SEVT)은 2017년부터 베트남 기업 중 수익 등의 측면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베트남은 2013년 3월에 투자 허가를 받아 2014년 3월에 초기 투자자본 50억 달러로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타이응우옌(Thai Nguyen) 성 내 삼성전자 및 기타 200여개 이상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1, 2차 협력사들의 투자는 성내 첨단산업 분야 FDI 사업 유치 및 해당 성의 발전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사 결과 상위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국유기업에 해당했다. 베트남은 국가 차원에서 여전히 천연자원, 전기, 인프라, 대형 은행, 군사 기업 등 주요 기업에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의 베트남 진출 주요 기업

한국은 1989년 삼성물산, 대우를 필두로 1990년 LG상사, 1992년 신한은행, GS건설, 대우건설 등 꾸준히 진출하여 오늘날까지 투자 누적액 1위 국가를 기록하는 등 베트남 내 FDI 유입에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특히나 삼성전자, LG전자, 효성, 롯데, 포스코, 현대, 대우, 경남건설, GS, 두산 등 주요 기업들이 진출하여 부동산 개발 및 전자산업 등의 제조업, 조선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사점

베트남 리포트는, VNR 500 기업을 발표하면서 최근의 에너지 가격 불안정, 원부자재 가격 불안정, 동종 업계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리스크, 환율 압력 상승 등을 주요 기업경영의 어려움으로 기술했다.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로컬기업 육성을 위해 외국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적극적인 만큼 어려움 속에서도 베트남 기업들이 ICT, 이차전지, 디지털 등 신 협력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추후 베트남의 새로운 10대 민영기업의 등장이 기대된다.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과 공급망 분석

-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은 수입한 원자재로 중간재 및 최종재를 생산하여 다시 수출하는 구조
- 기업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는 자세한 공급망 동향

2021년 베트남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은 약 1,000만 톤으로 전년대비 24.9% 증가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따르면 플라스틱 산업은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산업 중 하나로 최근 10년간 약 16~18%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했다. 베트남 내에는 4,000개 이상의 기업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남부에 80% 이상이 집중돼 있다.

베트남 플라스틱의 산업의 원자재 및 최종재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15~35% 정도만 원재료를 자급하며 이외는 중국, 한국, 일본 및 ASEAN 지역에서 수입한다. 베트남 내 1차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수요는 연 10% 이상 증가하는 반면 국내 공급 증가율은 연 3% 미만이며 지속적으로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용도는 포장, 소비재 등 단순한 제품부터 건설,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첨단 플라스틱까지 다양하며, 용도별로는 포장(39%), 가정용(32%), 건설(14%), 엔지니어링(9%) 순으로 집계된다.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는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의 공급망 구조

베트남에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우리 진출기업과 트레이딩 기업의 종사자에 따르면 플라스틱 원재료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사용한다고 한다. 첫 번째는 자사 간 거래로 베트남의 자사 생산법인으로의 납품이며 두 번째는 베트남 플라스틱 유통 업체에게 납품하는 경우, 세 번째는 베트남 플라스틱 End-User에게 납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플라스틱 생산법인을 둔 우리 진출 기업은 스마트폰 및 가전제품과 차량 부품 생산 공장으로 납품하는 비중이 높다. 이 중 스마트폰 및 가전제품은 대부분 선진국으로 수출된다. End user가 직접 플라스틱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Distributor를 중간에 끼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신 거래를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원자재 수출업체는 여신 거래를 하지 않지만 Distributor는 대량의 원자재를 구매하여 End-User에게 여신거래로 판매한다. 두 번째는 End-User의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인데, 현지에서 물류 창고를 운영하지 않는 End-User는 최소주문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Distributor를 통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의 전망

선진국 시장의 견고한 플라스틱 제품 수출성장성에 따라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중국산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높아지면서 중국 자본이 투자된 베트남 플라스틱 생산 업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2019-2021년 약 40%에서 60%로 중국 자본이 투자된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중부 진출기업 사회공헌활동 공유 포럼 참관기

- 중부 진출 주요 기업별 한국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사례 공유
- 성공적인 베트남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소통 및 현지 환경에 맞는 ESG 실천 필요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문제 등이 잇따라 부각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ESG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자발적인 ESG 활동을 장려하거나 세금 감면, 연구회 지원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ESG 활동을 법제화하고 구체적인 요구조건 및 활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아직 사회 깊숙이 ESG 개념이 자리 잡지는 못했으나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경제성장 구조로 글로벌 ESG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 등이 가시화되고 있어 최근 ESG를 기업활동에 적극 연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 지난 2021년 베트남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서는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주관으로 베트남 중부지역 소재 한국 기업 CSR 활동사례 공유 포럼이 개최되었다. 주다낭 총영사를 비롯하여 지방청시 관계자, 유관기관 및 진출기업 20개사가 모인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베트남 CSR에서 더 나아가 ESG 경영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표적인 CSR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베트남 비즈니스 활동에서 ESG 경영 및 CSR 실천의 중요성

2004년 베트남 정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결의문에서 기업인의 책임으로 1) 기업은 청정 생산기술을 적용하고, 생산과정에서 연료 및 재료를 절약하며 친환경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2) 기업인 협회는 기업의 이익을 대표하고 기업인이 정치, 사회 및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이후, 2009년에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SR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환경오염 감소, 노동환경개선 등을 통한 베트남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이 주요 골자였다.

시사점

기업 경영에서 이윤획득을 위한 활동 외에도 환경, 사회, 거버넌스, 곧 ESG에 대한 요구는 지속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과거 신흥국의 경우 환경규제나 제도가 선진지역에 비해 요구수준이 낮거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환경오염, 노동착취와 같은 기업활동의 외부효과가 실질적인 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규범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흥지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이 CSR, 나아가 ESG경영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출 지역사회에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꽝응아이성 정부 관계자인 하 황 비엣 프영 국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부지역 한국진출 기업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중부지역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해왔음을 알게되었다고 언급했다.





2023년 다낭시 ICT 산업 동향

- 다낭시 IT 산업은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8% 이상 지속
- 양호한 ICT 산업환경을 갖춘 다낭시에 해외기업 투자진출 확대 전망

IT 및 소프트웨어 파크 인프라 현황

현재 다낭시에는 베트남 총리가 승인한 3개의 IT 파크가 운영 중에있으며, 1개의 IT 파크가 건설 중에 있다. 다낭 소프트웨어 파크는 2008년 10월부터 운영되었으며 토지 면적이 2헥타르, 총 투자액은 약 7백만 달러 (국가예산)이다. 베트남 총리의 결정 1967/QĐ-TTg(2017.12.07 발행)에 따라 중앙 집중식 IT단지으로 인정 받았다. 다낭 소프트웨어 파크에 사용되는 총 부지면적은 9,424.92m²이며, 현재까지 총 66개의 기업이 유치되었으며, 약 2,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 중 19개사는 외국기업(대만 1개사, 미국 1개사, 호주 1개사, 일본 16개사)일 정도로 국제화된 산업단지이다. 다낭 2호 소프트웨어파크 프로젝트는 다낭 민간 및 산업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가 투자하였으며, 총 면적은 5.3헥타르이다. 총 투자자본은 약 42백만 달러로 2020년 10월 10일부 착공하여 현재까지 건설중이다. 다낭 IT파크는 총 면적은 131헥타르, 총 투자자본은 약 28백만 달러로, 2019년부터 운영중이다. 대표 입주기업인 SMT는 첨단 전자장비 제조 업체로 8,000sqm규모의 2개 공장을 포함하여 16개의 조립라인과 16개의 SMT라인에 대한 T 라인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다낭시의 IT산업 현황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ICT산업은 크게 성장하였다. 최근 5년간 다낭시의 IT산업은 연간 평균 8%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다낭시의 핵심 경제 부문으로 자리 매김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수출은 연평균 15%씩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본과 미국이 최대 수출 시장이고, EU,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과 같은 다른 아시아 시장은 점차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다낭시 ICT산업의 총 수익은 1,400백만 달러로 당초 목표의 103.4%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2021년 대비 9.6% 증가한 수치이다. 다낭시에서 활동하는 IT기업 수는 2022년 기준 2,359개사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3배 높은 수치이다. IT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47,500명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낭시 IT파크가 다양한 강점 및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통신 및 IT 관련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가 취약하고 홍보도 부족한 실정으로 세계적인 하이테크 기업의 투자유치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다.

시사점

다낭시는 오는 2025년까지 ICT 산업 규모를 약 23억4000만 달러까지 성장 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IT파크와 같은 인프라 시설, 인적 자원 육성, 생활·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유망 ICT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베트남의 ICT허브로서의 다양한 잠재력을 보유한 다낭시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ICT 기업의 진출이 기대된다.





베트남의 항만 및 공항 현황

- 베트남에 등록된 항구는 총 296개... 북부 하이퐁 항구, 남부 갯라이 항구 등 물류 허브
- 북부 노이바이 공항, 남부 편선녓 공항 외에 2030년까지 신규 공항 6개 증설 계획

베트남의 항만 및 공항 체계: 34개의 항만과 296개의 부두

베트남 해양청(VMA)에 따르면, 베트남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1.7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례로 2015년에는 컨테이너 처리량이 1억2630만 톤(1150만TUEs)이었다면, 2022년에는 2억 4300만 톤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2023년 1분기에는 베트남의 항구를 통과한 컨테이너 양이 1억8000만 톤에 달해 지난 동기 대비 6% 성장했다. 향후 해양청은 2030년까지 베트남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14억225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과 같은 수출입 중심 경제에서, 항만 및 공항 시스템은 국내 공급망으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성장 및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항만과 공항은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이동을 위한 필수 관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처럼 원부자재를 타국에서 주로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중간 생산거점과 같은 곳에서, 효율적인 항만 및 공항 시스템은 수출입품을 적재적소로 운송하는데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 항만 및 공항은 그 외에도 고용을 창출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 및 타 지역 및 인근국과의 연결성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한다.

주요 공항 과밀 문제, 개선 필요: 전국 22개 공항, 2030년까지 6개 신공항 건설 예정

항공 운송 역시 베트남 교통 산업의 필수적인 분야로 꾸준히 증설돼 왔다. 이러한 성장은 관광 부문의 성장, 다양한 저비용 항공사 도입, 그리고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했다. 베트남 항공시장 역시 전 세계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상반기 국내선을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가 관측됐다. 베트남은 현재 22개 공항을 운영 중이며, 이 중 10개 공항은 국제공항, 12개 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연간 1억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다. 국영 지분이 95.4%인 베트남 최대 공항 운영사 베트남공항공사(Airports Corporation of Vietnam, ACV)는 현재 전국 공항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일반 사기업이 투자 및 운영하는 곳은 쩡닌성의 번돈(Van Don) 공항뿐이며, 번돈 공항은 현재 썬그룹(Sun Group)에서 운영하고 있다.

공항 인프라 투자에 민간 참여 필요

전 세계 공항에서 민간자금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또는 프랜차이즈 형식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후 국가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핵심 공항의 소유권 및 통제권만 보유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공공 투자만으로는 공항 환경 개선과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에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항 내 시설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일부 지방 당국은 PPP를 활용한 신공항 건설을 허가받았지만, 해당 PPP 프로젝트의 투자 회수 기간이 최대 50년 등으로 지나치게 길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베트남 남부 프로젝트 동향

-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활발
- 베트남의 프로젝트 진행시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는 필수

베트남은 인프라 산업이 국가 기반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중요한 산업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의 인프라 산업은 도로, 다리,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수송 인프라와 전력·가스 공급설비 등의 에너지 공급시설, 그리고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장과 같은 도시 운영 기반시설로 구성된다. 베트남은 정부 예산, ODA 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민관협력사업(PPP)법을 제정하여 외국 투자자들의 참여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COP24(제 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9% 감축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위해 태양광 발전, 내륙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도 힘을 쏟고 있다.

향후 투자 동향

베트남은 인프라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아 도로, 항만, 공항, 교량, 에너지 등의 사업에 투자해왔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우대대출이 줄어들고, 공공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외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민간투자(PPP) 형태로 자본금을 충당하여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향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로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남-북 고속도로와 함께 교통과 물류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지역 간의 연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메콩 델타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농업과 농촌 지역에 수자원 관리와 저수지 건설을 통해 농작물 생산과 생계를 보호하고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은 해당 두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을 위한 제언

베트남의 프로젝트 전문 컨설팅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투자자들은 한국의 선진화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용 부담과 기술력 이전을 원하기 때문에 보통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또한 프로젝트 경험 부족, 자본 부족,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의 이유로 프로젝트 진행 시 계획된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나 진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때문에 베트남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는 조급함 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베트남 회사가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실행력이 떨어질 경우 프로젝트의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과 전력 발전 인프라 분야에서는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인구 측면에서 살펴본 베트남의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의 잠재력

- 베트남 인구 1억 명 돌파.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의미
- 중장기적으로 기회와 위기 요인 상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에 주목

양적 관점에서 보는 베트남 노동인구의 기회와 위기

베트남 인구는 지난 3월 1억 명을 돌파해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국가인구 1억 명 돌파 국가 반열에 올랐다. 베트남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94명에 이르며 중위연령은 32.5세이다. 특히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5470만9000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처럼 베트남이 젊고 강한 노동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력 규모는 5780만 명으로 중국의 7억7800만 명, 인도의 5억 명에 비해 작아 전기전자, 자동차 등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난다면 미래에는 양적인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 또한, 최근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며 인건비 상승폭도 높아 향후 노동시장이 위축될 여지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 및 노동시장 참여율이 개선되지 않는 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질적 관점에서 보는 베트남의 GVC 경쟁력

숙련된 노동력 또한 문제이다. 실제 제조업 분야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서비스업과 경영지원에서는 고학력의 우수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복잡한 공정이나 경영기법이 요구되는 노동환경에서는 현지 인력을 활용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베트남 주요 산업부품의 현지화율은 36%로 중국이나 인도보다 낮으며 현지 부품 조달을 위한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 정부가 메이크인 베트남 정책을 통해 자체 부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여전히 반도체, 전기전자 부품 모듈과 같은 첨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UN이 발간하는 인간개발지수(HDI)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1년 기준 0.703점으로 191개국 중에서 115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간(Medium)과 낮은(Low) 개발단계의 정확히 경계면에 위치해 있다.

노동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

4차 산업혁명 전 세계 노동시장 및 직업 구조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베트남 역시 여느 국가들처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로 베트남을 지목한 바 있다. 베트남의 낮은 기술 수준과 전문 인력 부족 때문이다. 이에 베트남 정부 또한 노동력 양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며, 지난 2017년 5월 총리 지시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학교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제도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베트남의 공공부문 149개의 대학교에서 매년 5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412개의 IT 전문 대학에서 매년 1만20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배출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대학인 FPT University, Lac Hong University, Duy Tan University, Le Quy Don Technical University 등에서도 고속연 IT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베트남 금 시장 동향

- 베트남 중앙은행(SBV), 동-달러 환율 관리를 위해 국내 금 공급 독점
- 밀반입, 암시장 형성 등 부작용이 있어 시장 규제에 귀추

베트남의 금 사재기

베트남은 20세기 말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 통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을 경험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자국 통화보다 금을 안전 자산으로서 더욱 선호하게 됐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부동산, 오토바이, 텔레비전, 가축 등이 금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됐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거래 및 결제 수단으로서 금의 기능은 점차 축소됐다.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의 금 수요 동향에 따르면 베트남의 2022년 금 소비자 수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59.1톤에 도달했다. 이 중 18.1톤은 귀금속, 41톤은 골드바 또는 금화였다. 베트남은 2022년 아세안 지역의 금 수요 증가율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베트남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베트남의 금 가격은 물가상승률, 통화환율정책, 세계 금 가격, 수출입정책, 수입 공급, 현지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가 베트남 내 금 수요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달러-베트남 동 환율 역시 베트남 국내 금 가격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동-달러 환율이 베트남 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해 국내 금 가격과 세계 금 가격의 차이에 한 몫하게 된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금 수입규제도 금 가격에 영향을 준다. 금 수입 쿼터 허용은 금 시장을 관리하는 행정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중앙은행이 환율 관리와 관련된 외환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금 가격, SJC가 항상 최고치

베트남 중앙은행은 수년간 달러와 금을 감독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안티달러 라이제이션(Anti-dollarization, 탈달러화) 및 탈황금화(Anti-goldenization)를 목표로 골드바를 독점 생산할 권리를 보유하고 국가가 생산하는 골드바 브랜드로 SJC를 선정했다. 1988년 설립된 사이공 주얼리 컴퍼니(Saigon Jewelry Company, SJC)는 베트남 최대의 골드바 생산 및 유통 기업이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세계 시장과 국내시장의 금 가격 차이, 특히 SJC 금 가격과의 차이는 금 투기와 밀수라는 부작용을 낳게 됐다. 베트남 관계 당국은 최대 100kg에 달하는 금 밀수 사례를 다수 적발했으며,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다. 금은 주로 육지의 국경 검문소를 통해 불법으로 밀반입되며 이외에도 항공편과 해상편을 통해서도 대량으로 운반된다.





베트남 소매시장·유통망 동향 및 트렌드

- 전통과 현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재하는 베트남 소매 시장
-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망별 특징 파악을 통한 접근 필요

베트남 정부의 2023년 GDP 성장률 6.5% 목표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1분기 GDP 성장률은 3.32%에 그쳤다. 베트남의 1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3% 감소했고,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7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제조건설업은 역성장을 보였으나 서비스업은 전년 동기보다 더 높은 6.79%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전체 GDP의 플러스 성장을 견인했다.

지역별, 형태별 소매 시장 비교

베트남 통계총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베트남 상품 및 서비스 소매 판매액은 4657조660억 동을 기록했다. 지역별 소매시장 규모를 비교해 보면, 호찌민시가 17.07%, 하노이가 10.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1개 성시의 비중은 72%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약 0.1%~4%로 확연히 줄어든다.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망 현황

시장조사기관 Q&Me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춤했던 오프라인 유통망 점포수는 2022년에 들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회복 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국(iDEA)은 2022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매출액이 16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했고 상품 및 서비스 소매 총판매액의 7.5%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시사점

베트남의 소매시장은 정부의 경제 대책 및 소득 수준의 향상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극복하고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저가 식품 및 생필품 위주의 전통식 소매점 위주의 도시 외곽 및 농촌지역에도 현대식 소매점이 점차 진출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Sendo는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배송비 할인 정책을 펼치는 등 온라인 유통망에서도 배송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소비자들의 대다수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 지인 또는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의 추천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기도 한다. 중저가의 제품은 온라인에서 쉽게 주문하나, 고가의 제품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한다.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토대로 온라인에서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하지만 마찬가지로 높은 오토바이 보급률로 인해 직접 매장에 방문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옴니 채널, 라이브 커머스 등 베트남에서 특히 소비재에 대한 유행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베스트셀러는 될지언정 스테디셀러가 되긴 어렵다. 베트남의 1980년 대 중반 경제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국가에서 제품들이 수입되고 있다. 이미 베트남에는 글로벌 외투기업들의 제품과 로컬제품, 그리고 각종 수입 제품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섬유 봉제업, 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은?

- 베트남 섬유 봉제업 위기의 주 원인은 생산 투입 비용상승과 신규 주문 감소
- 미국, EU 등 베트남의 수출 주요시장의 소비 회복 시점을 주목해야

2023년에도 여전히 베트남 섬유 봉제 산업 동향은 '흐림'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원단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사 수입이 2023년 4월까지 약 6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했다. 2023년 4월까지 베트남의 섬유/직물 제품의 수출액은 97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1% 감소했다. 또한 베트남 통계청에서 발표한 5월 직물/의류 제조 부문의 산업생산지수(IIP)가 94%p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6%p 하락했다.

미국, EU 등 베트남의 주요 시장 수요감소와 투입비용 증가 문제가 지속

1. 미국, 중국, EU 등으로부터의 영향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0%p를 기록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심리가 회복되더라도 신규 주문이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미국 시장의 과재고율은 수요처의 신규주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임금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입 비용 증가

베트남은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이 매년 5~7% 상승해왔다. 2022년 베트남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12%로 아시아 및 전세계에서 가장 임금 상승률이 높다. 또한, 작년부터 지속된 원자재 공급망 불안은 제품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섬유 봉제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와 섬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베트남의 섬유 봉제 시장은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낮추려 하는 베트남 섬유 봉제 산업 발전 전략

베트남은 섬유 및 의류 수출에서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원단, 면과 같은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인건비 상승, 물류 차질 등의 이슈 발생 시 원자재의 가격이 변동하고 원자재 공급의 불확실성이 상승한다. 중국으로부터의 높은 원자재 의존도는 베트남의 섬유 봉제 산업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업계의 대처 동향과 시사점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신규 주문의 감소가 장기간 지속되자 베트남 소재의 섬유 봉제 업체도 투입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경영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업일수 감축운영인데, 베트남은 주 6일 근무가 기본이지만 대부분의 섬유 봉제 생산업체에서는 현재 주 5일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공장에서는 주 4일 생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체는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 근로자의 이탈이 불가피하게 이후 주문이 회복될 경우 즉각적인 생산량 회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신발 업체는 신규주문이 감소가 장기화되어 조업일수 감축으로도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사례도 있다.





[기고] 2023년 상반기 베트남 사무용 부동산 현황

알스퀘어 베트남(RSQUARE VIETNAM) 신지민 법인장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기존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서비스업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중심가의 오피스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수요가 다대한 하노이, 호치민, 다낭을 중심으로 사무용 부동산 현황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본 기고는 2023년 5월초에 진행한 실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조사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① 유형 : 오피스 빌딩, ② 규모 : 연면적 5,000sqm 이상(5,000sqm 미만의 소형 오피스는 제외), ③ 상태 : 5월 기준 공실 보유중, ④ 등급 : 연면적을 기준으로 A, B, C등급으로 구분

하노이 사무용 부동산 현황

하노이는 총 11개 군에 위치한 175개 오피스 빌딩, 합산 4,308,1480sqm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하노이에서 오피스 빌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켄우저이(Cau Giay)군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는 총 50개의 오피스 빌딩이 위치하고 있고, 해당 지역의 등급별 오피스 sqm 당 NOC는 20.3 / 17.8 / 12.4 달러이다. 평균 임대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호안끼엠(Hoan Kiem)군으로, 21개의 오피스 빌딩이 위치하고 있으며, 각 등급별 오피스 sqm 당 NOC는 36.6 / 37.5 / 23.1 달러이다. 반대로 평균 임대료가 가장 낮은 지역은 탄쑤언(Thanh Xuan)군으로 2개 C등급 오피스 빌딩만 위치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sqm 당 9.5 달러로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기록했다.

호치민시 사무용 부동산 현황

호치민시는 총 17개 군에 위치한 239개 오피스 빌딩, 합산 13,300,542sqm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호치민시에서 오피스 빌딩이 가장 많고, 평균 임대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1군(District 1)이며, 79개의 오피스 빌딩이 위치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등급별 오피스 sqm 당 NOC는 49.7 / 38.5 / 29.8 달러로 하노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기록했다. 1군과 인접해 있어 도심권역(CBD)으로 분류되는 3군(District 3)에는 27개의 오피스 빌딩이 있으며 이 지역의 평균 임대료는 각각 sqm 당 None / 31.0 / 24.7 달러로 나타났다.

다낭 사무용 부동산 현황

다낭에는 총 3개 군에 위치한 9개의 오피스 빌딩, 합산 96,575sqm 면적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다낭에서 오피스 빌딩이 가장 많고, 평균 임대료가 높은 지역은 하이쩌우(Hai Chau)군으로, 등급별 오피스 NOC는 sqm 당 None / 15 / 26 달러이다. 이 지역의 특이점으로는 C등급의 신축 오피스가 공급되면서 해당 오피스의 높은 임대료로 인해 지역 평균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낭에서 평균 임대료가 가장 낮은 지역은 켄레(Cam Le)군으로 2개의 오피스 빌딩이 위치하고 있고 NOC는 sqm 당 10.1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대통령, 205명 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베트남 국민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5월 취임 이후 해외 순방에 총 205개 기업 대표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반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 사절단 규모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내 5대 대기업 총수를 포함함. 한국 경제사절단은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공급망, 신기술, 에너지, 환경 등 각 분야에서 베트남과 협력 강화를 기대함. 특히 한국 시장이 직면한 중국 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투자 대체지로서의 기대감이 상승됨.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인 간담회에서 베트남 시장에 대한 투자를 당부함.

[Phap Luat, 6. 23]

▶ 베트남,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에 집중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한미반도체는 지난 5월 말부터 북부 박닌(Bac Ninh)성에 기반을 둔 지사를 공식 운영 시작함. 전력 및 IoT 시스템용 반도체 솔루션 전문 기업 인피니온(Infineon Technologies AG) 또한 하노이 내 반도체 칩 개발팀 조직 및 베트남 사업 확장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반도체 기업의 베트남 내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시장조사업체 Technavio는 2022~2027년 베트남 반도체 시장 연평균복합성장률을 6.12%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며, 스마트폰 수요 증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등이 주요 성장 요인이나, 숙련 노동자 부족은 시장 성장 저해 요소라고 분석함.

[VN News, 6. 19]

▶ 베트남 정부, 2024년도 개발계획 지침(Directive) 21/CT-TTg 발표

베트남 정부는 2021~2025년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에 명시된 목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도 개발 계획 지침 21/CT-TTg를 발표함. 팜 민 쯐(Pham Minh Chinh) 총리는 각 부처, 경제단체, 지자체 등 주요 경제 주체들에 내년도 사회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각 부처, 중앙기관 및 지방 정부는 지침 이행을 위해 2023년 사회경제발전계획 이행 평가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주요 목표 및 과업은 베트남 정부의 거시경제 안정 및 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해야 하고, 주요 과업은 제13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전당대회) 결의안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주요 목표는 거시경제 안정 유지, 인플레이션 통제, 성장 촉진 등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 제도 완성에 필요한 목표를 포함해야 함. 또한, 2024년 지방 예산 목표치 수립 및 2024~2026년 3개년 예산 운용 계획을 포함하고, 2024년 국내 세수 예상치가 2023년 예상 집행금액 대비 5~7% 성장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Vietnam News, 6. 19]

▶ 울산항-베트남 하이퐁항, 신규 연결 항로 개통

하이퐁항에서 출발한 17,453톤급 컨테이너선 에버체이스트(Ever Chaste)는 지난 15일에 울산항에 입항함.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 에버그린 코리아(Evergreen Korea)가 매주 3회 울산-하이퐁 간 신규 운항할 예정이라 밝힘. 이번 신규 항로 개통을 통해 울산항은 연간 약 24,000TEU 증가를 예상함. 2023년에 울산항은 말레이시아 페낭(Penang) 및 중국 Ningbo 등 총 2개 항구를 운항중임. 울산항만공사는 올 6월까지 동남아시아, 일본 및 중국 등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항로를 총 37개 운영할 것이라 밝힘.

[Vietnam Plus, 6. 15]



▶ 베트남 은행 개인예금, 10년 만에 최고치로 급증

베트남 국영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액이 415조 VND(약 175억 8,0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10년간 가장 큰 금액이라고 전함. 지난 7~8년 은행의 평균 개인예금액은 1분기 약 150조 VND(약 63억 7,700만 달러)에 그쳤음. 개인예금은 저축예금 금리가 높았던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량이 증가했음. 이는 세계적 경제침체 상황에서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아 미국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조치에 따라 베트남 또한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해 예금 유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개인예금과 달리 기업 예금은 연초대비 약 4.9% 감소한 5조 6,600억 VND(약 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함. 이는 부동산 업계의 어려움과 제조 업계의 신규주문감소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운영을 축소함에 기인함.

[VN Express, 6. 15]

▶ 베트남 5월 자동차 판매,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

베트남 5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밝혀짐.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량은 2개월 연속 감소 중이며, VAMA 회원사 기준 5월 판매량은 TC모터스 및 빈패스트(VinFast)를 제외하고 20,726대라고 밝힘. 지난 3월 30,038대 판매를 통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4월 22,409대, 5월 20,726대로 하락세가 지속됨. 소비자 구매력 감소로 인해 고가 제품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됨. 주요 상위 5개 브랜드는 포드(Ford)사를 제외하고 모두 판매 감소함. (타코(THACO) 49% 감소, 도요타 43% 감소 등)

[VN Express, 6. 15]

▶ 베트남, 5월 철강 수입 전월대비 18.9% 감소

2023년 5월 베트남의 철강 수입량은 약 83만 톤으로 전월대비 18.9% 감소하였고, 고철 수입량은 약 30만 톤으로 전월대비 49.4% 감소함.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베트남 철강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2.4% 감소하였으나, 고철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함.

[Steelorbis, 6. 14]

▶ 베트남 북부지역, 전력 부족 일부 완화로 생산활동 정상화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박장(Bac Giang)성 산업단지 내 모든 제조사는 매일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가능하여 생산활동이 정상화 되었다고 밝힘. 박장(Bac Giang)성 산업단지 관리위원장 다오 쉐언 끄엉(Dao Xuan Cuong)은 각 공장은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7시 45분까지 생산을 축소할 것을 통지함. 최근 전력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부하 차단 조치로 베트남 북부지역 내 제조기업 생산활동에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 됨. 이에 주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코참)은 전력난으로 생산 차질을 빚는 한국 기업을 대표하여 베트남 총리에게 직접 구제 조치를 요청한 바 있음.

[VN Express, 6. 14]



▶ 베트남, 올해 수산물 수출액 90억 달러 목표

베트남수산물수출생산자협회(VASEP)는 올해 베트남 수산물 수출액 9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해당 목표는 지난 2022년 업계 최초로 수출액 110억 달러를 기록한 성과에 따른 것임. 지난 6월 12일 호치민시에서 열린 VASEP의 총회에서 Nguyen Thi Thu Sac 회장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악화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수산업계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함.

[Vietnam News, 6. 13]

▶ EU, 베트남산 철강에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EU는 베트남을 포함한 다수 국가로부터의 수입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함. 기한은 2024년 6월 말까지로 12개월을 연장하였음. EU는 2018년 7월부터 수입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 중으로, 베트남 이외에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됨. EU가 할당한 쿼터 이상으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에서 25%의 추가 할당관세(Tariff-rate Quota, TRQ)가 부과됨. 대상 품목은 "스테인리스 냉간 압연 강판(stainless cold rolled sheets and strips)"과 "열간 압연 강판(hot rolled sheets and strips)"을 포함한 베트남산 철강 제품 8개임.

[VN Express, 6. 9]

▶ 베트남, 2030년까지 공항 33개로 확대 예정

베트남은 2030년까지 국제공항 14개, 국내공항 19개로 확대하여 총 33개의 공항을 보유할 예정에 있음. 이를 위한 투자액은 약 420조 동(약 180억 달러)으로 추산됨. 이로 인해 베트남은 물류 운송, 관광객 유치 등의 부문에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계획에 따르면 공항을 통한 총 승객 수는 2030년까지 약 2억 7,590만 명, 총 화물량은 약 41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Vietnam News, 6. 9]

▶ 호치민시, 1~5월 FDI 11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

호치민시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2023년 5월까지 약 11억 4,000만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을 유치했고 이는 전년대비 13.5% 감소했다고 밝힘. 이 중 374개의 신규 프로젝트에 1억 9,980만 달러가 투입되었고 이는 전년대비 2.5% 감소한 금액임. 싱가포르를 신규 등록 자본금의 60.8%(약 1억 2,150만 달러, 72개 신규 프로젝트)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국가이며, 일본은 8.3%(약 1,650만 달러, 32개 신규 프로젝트)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고 홍콩은 5.6%(약 1,110만 달러, 25개 신규 프로젝트)로 3위를 차지함. 호치민시는 121개의 프로젝트에 4억 330만 달러의 추가 자본을 유치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35.3% 감소한 수치임.

[Saigon Giai Phong News, 6. 5]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Wastewater and waste treatment system construction for Innovation Center in Tan Tap industrial park
 - Tan Lap Wind Power Plant
-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inseul_y@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Wastewater and waste treatment system construction for Innovation Center in Tan Tap industrial park

| | |
|-------------|--|
| 발주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Long An Development Invest Joint Stock Company |
|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베트남 Long An 성 ○ 규모 : 약 126 백만 달러 ○ 프로젝트 단계 : Proposing investment policy for Innovation Center / Investment preparation stage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ha in Tan Tap Industrial Park, including functional areas : Integrated service center; Offices for large domestic and foreign technology companies; Co-working space for entrepreneurs and start-ups to create, incubate, accelerate start-ups, support technology transfer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as of laboratories, prototype workshops; Product display area, Event space; Production and research zones in various fields; Area for construction of supporting works such as apartments, villas, schools, hospitals, commercial and service areas, entertainment areas. - They are finding partners who have experiences in operation, management and exploitation of the Innovation Center; as well as construction contractor for wastewater and waste treatment systems in industrial parks. |



(입찰정보)

□ Tan Lap Wind Power Plant

| | |
|------|--|
| 발주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EVN - Central Power Corporation |
|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베트남 Quang Tri 성 ○ 규모 : 약 94.5 백만 달러 ○ 프로젝트 단계 : FS is on-going ○ 세부내용 <p>Quang Tri province is among the most potential location for wind power development. Up till now, there has been about 20 wind power plants in Quang Tri province.</p> <p>Tan Lap wind power plant is constructed on the land area of 468ha and has the total capacity of 50MW</p> <p>The project is divided into 2 pha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ase 1 (2023-2025): 30MW - Phase 2 (2025-2026): 20 MW <p>There are 20 wind turbines (140m height) built on the total area of 468ha (capacity is 2.5 MW/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ected COD: 2025 <p>This plant will be connected to the national electricity system through Khe Sanh 110kV substation.</p> <p>When this project get into operation, it can generate averagely 168 GWh/year and apply the latest price of 1.587.12 VND/kWh.</p> |

<끝>



재베트남 한국 건설협회(KACV)

■ 재베트남 한국 건설협회(KACV) 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한국 건설기업들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정보 교환, 친목을 목적으로 운영
-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베트남 정부의 건설 관련 정책에 대한 건의와 불합리한 행정 처리에 대한 대응, 발주처와의 원만한 관계 지원
- 1994년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최병수 前국토교통관이 하노이 및 호치민 건설관련 기업 간 모임 최초 진행
- 2015년 3월 이영욱 前국토교통관의 주도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북부 건설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3개분과*의 건설협회를 조직하여 운영
 - * 1분과: 도급순위 100위의 건설 기업(한국에 본사를 둔 건설사) / 2분과: 전기, 설비 등 건설 관련 기업 및 자재 전문 기업 / 3분과: 설계 감리 등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
- 2023년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재베트남 한국 건설협회는 베트남 북부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됨.
- 기존의 3개 분과로 운영되었던 것을 하나의 건설협회로 통합 운영되며 건설협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됨.
 - 일반회원은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건설 관련 기업 또는 기관(정부 산하 기관)이며, 특별회원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또는 일반회원 외의 기타 기업으로서 건설협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업 또는 기관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으로 임명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150여개 회원사였으나 팬데믹 동안 다수의 회원사들이 국내로 복귀하여 현재 90개의 건설관련 기업들이 건설협회 회원사로 등록
- 운영진 현황:
 - 회장: Human Tech Innovation(HTI Vina) 한창우 대표
 - 고문: 현대건설 공신표, 포엠건축 류성호, VINA F&C 조한정, 법무법인 태평양 배용근 변호사
 - 부회장: 롯데E&C 엄신철, 대우E&C 심덕보, 삼성물산 오청민, 태림기업 임성준, 유신 구은모, 삼우종합건설 이동현, LH 황성관
 - 특별회원사: KOTRA, KIND, 수출입은행, 서울보증보험, LH, 한전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



■ **건설협회의 역할**

- 건설협회 회원사의 권익 보호 대한민국 정부기관, 경제단체와 정보교환 및 유기적인 협력 도모
- 베트남 정부기관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 및 이를 통한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협력증진에 기여
- 베트남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및 지원활동과 이를 통한 한국기업의 이미지 제고
- 건설관련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대사관에 전달하고 대응 방안 마련

■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추진했던 사업**

- 연간 2회의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베트남 신규 개발 프로젝트 소개, 개정 노동법 및 건설관련 법 공유 등 회원사간 정보 교류 및 친목 도모
- 2022년 재베트남 한국 건설협회와 베트남 건설부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한국기업이 겪고있는 건설업 관련 이슈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 건설면허 발급 관련, △ 내화페인트 인증 지연으로 인한 피해 △ 소방법 강화로 인한 애로사항, △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를 전달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12명의 베트남 건설부 내 담당국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함.
- 베트남 건설부 대외협력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연례 개최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 투자 기업들의 애로사항 전달 및 대응 방안 모색
- 2023년 8월 중 베트남 건설협회와(VACC)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여 한국 건설 기업과 베트남 건설 기업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성과 제고
- 2023년 4/4분기에는 베트남 진출 여타 국가 건설협회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

■ **협회의 향후 비전**

- 베트남 건설부와 한국 건설협회 간 긴밀한 협조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베한국대사관 국토교통관과 지속적인 협업
 -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우리 기업의 애로·문의사항 전달 창구를 건설협회로 일원화하여 한국건설 기업들의 의견 수렴, 주베한국대사관 국토관에게 전달
- 타 국가 건설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 지원
- 수주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미수금 및 미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건설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 <끝>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KOTRA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민 방문에 맞춰 지난 6월 22일 베트남 하노이 NCC(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의 부대 행사로 ‘한-베트남 무역상담회’와 ‘K-산업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무역상담회에는 △제조·전력·플랜트인프라 등 중간재와 부품 분야뿐 아니라 △ICT·스마트팜·문화콘텐츠 등 신기술 △프리미엄·필수 소비재 △농수산물 △의료·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 기업 100개사 및 베트남 바이어 200여 개사가 참가해 총 540여 건의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쇼케이스는 대기업 9개사의 부스와 미래협력관 등 총 10개 부스로 구성돼 미래차와 친환경 기술을 비롯해 우리 프리미엄 소비재까지 베트남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베트남인들에게 친숙한 제품과 서비스 전시가 이뤄졌다. 특히, 미래협력관은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 1위 스타트업인 △OKXE(오케이씨)를 비롯해 △코코넛사일로(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어밸브(스마트팜 시제어 솔루션) △이노테크미디어(VR 콘텐츠) △솔루엠(전기차 파워모듈 및 전자식가격표시기) 등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현지 시장에 진출한 우리 중소·중견기업 5개사가 공동관을 구성해 베트남 관람객들의 열띤 관심 속에 다양한 체험이 이어졌다.

수교 30주년이었던 지난해 한국-베트남 교역액은 사상 최고인 877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30년간 양국은 상호 3대 교역국으로 발전, 교역규모는 175배 증가하고 우리 기업 약 8,800개사가 베트남에 진출하는 등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산 소비재와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등 베트남 소비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고, 스마트시티·스마트팜 등 베트남 정부 주도의 인프라 개발산업이 향후 활성화될 전망으로 양국 경제협력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이번 행사로 양국의 협력 분야가 중간재, 부품 등 제조업 분야를 넘어 고부가가치의 첨단·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베트남의 우리 기업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져 우리나라 ‘무역 플러스 전환’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KOTRA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주요 사진>



<끝>



베트남 팀코리아협의회 활동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파만 지파참(不怕慢, 只怕站), 느림을 두려워 말고 멈춤을 두려워하라.
내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정진하면 됩니다.”**

PTV 최분도 회장 인터뷰



PTV 소개와 베트남에 최초 진출하게 되신 계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3년에 회사에 소방 설비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 영업직을 맡았었는데 제가 입사한 후 9개월 만에 그 회사가 부도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템과 바이어 관리를 해 왔기에 이를 기회 삼아 1994년 말에 창업을 했고, 1995년에 제 첫 거래처였던 붕파우 지역의 VSO Petro(Petro Vietnam 산하 기관)와 Vietnam Soviet Union이 만든 합작회사에 소방설비, 굵은 로프 등의 각종 안전장비를 납품하며 한국과 베트남을 오갔습니다. 그렇게 업을 이어가던 중 1997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서 처음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와이프의 건강문제로 인해 다시 한 번 힘든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1인 무역회사, 소위 말하는 오퍼상이 이런 저런 풍파를 겪다 보니 회사는 정리 해야할 수준에 이르렀고, 재기하려 여러방면으로 노력 했습니다. 한국의 답답한 상황을 보니 자연스럽게 해외시장진출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을 겪어봤으니 베트남으로 다시 진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한참 활발했던 미국 시장으로 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할 것인지 고민하던 중 집사람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먼 미국을 포기하고 경험해본 적 있는 베트남을 다시 선택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2002년 베트남 복귀 후, 2003년 말 경 베트남 시장에 중국 제품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산 제품의 판매가가 우리 제조 원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 그걸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었고, 저는 2004년에 다시 한 번 회사 운영에 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EDI라는 통관 데이터 교환 역할을 하는 전자통관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베트남에는 해당 시스템이 없어 업무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던 저는 고객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시켜주면 사업거리가 되겠다 생각하여 2004년에 통관을 전문으로 하는 물류회사 PTV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무역을 하다보니 물류 통관업 애로사항을 겪고, 그 길로 사업거리를 캐치하게 된 셈이죠. 그 당시 2004~6년 사이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할 준비를 많이 할 때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와이프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다보니 가족들이 베트남에 남아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기업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예측 불가능”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축 공장 설비 통관 업무를 베트남 업체에 맡기면 계획에 맞게 빨리 생산에 들어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들어오는지, 왜 안 들어오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추적이 안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은 여기는 베트남이니까 안 들어오고, 또 못 들어오는 건 괜찮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야 대비를 하고 본사에 보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걸 본 제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예측 가능한 물류서비스”가 저희 회사의 콘셉이었습니다.

물류 사업 시작 후 운 좋게도 2006년 금호타이어의 남부 진출로 인한 전체 공장 설립 관련 통관 담당, 2009년 효성 베트남 전체 공장 설립 담당 등 베트남으로 신규진출하는 큰 기업들을 여러 차례 맡게 되면서 통관 쪽으로는 안정화 되었습니다. 이후 통관에서 종합 물류 쪽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했고, 2017년 이후에는 무역과 보험 회사를 추가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PTV는 한국 직원 13명, 베트남 직원 180명 정도의 인력 현황과, 2022년 기준 약 9,500만 불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위기상황과 타개 방법이 있었나요?

PTV를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몇 개 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14~5년 전 베트남 도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요 거래처 중에서 화학 제품을 원자재로 쓰는 회사가 있었는데, 재고 관리 실수로 화학 제품 물량이 부족해 재고가 4일치 밖에 남지 않은 것 입니다. 문제는 이 제품은 중국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항공 조달이 불가능했고, 중국에서 선박 운송 시 통관 절차까지 약 9일이 소요됐습니다. 제조 라인이 멈추게 되면 하루에 60만불 가량의 영업 피해뿐만 아니라 화학제품이다보니 라인 운영이 중단되면 파이프라인이 응고되어 다시 녹여서 작업 가능 상태로 만드는 데에만 며칠이 소요되어 적어도 몇 백만 불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저는 중국에 있는 제 파트너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중국 신천 동관 쪽에서 트럭으로 물건을 받아 평상이라는 중국 국경으로 옮겼습니다. 평상에서 베트남 북쪽 랑선 지역 남산 국경 세관을 통해 물건을 받는데 겨우 성공한 저희는 이제 이송 차량을 통해 호치민으로 서둘러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단 4일이었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국경 세관에서 직접 물건 확인 후 비행기로 이동하여 물품 하차 확인이었는데, 수배한 운송차량을 보니 컨테이너가 아닌 일반 트럭인데다가 차량 자체도 노화되어 위험한 상태였고, 기사들을 만나보니 주어진 4일 내에는 물건을 절대 못받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담당자와 현장에서 또 다른 렌트카를 수배해 각 차량 당 기사 2명씩 배치하여 밤새 팀 드라이버로 교대 운전을 하며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은 단연 제가 예측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차량 오버히트 현상, 언덕 구간 등의 이유로 7~8번 가량 시동이 꺼졌고, 교통경찰들에게 속도 제한으로 잡힌 것만 40번이 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속도로, 국도 구분없이 가다 보니 도로 속도 제한, 교량 통행 제한 등 제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경찰에게 잡히면 무조건 벌금 낼 생각으로 도착지만 향해 내려갔고, 4일간의 우여곡절 끝에 공장에 제품을 넣어주니 라인 중단 3시간 전이었습니다. 말그대로 영화 같은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한국 본사, 현지 공장으로부터 계속해서 확인 전화가 오고, 저는 차에서 내내 종이 지도를 보며 루트를 정하고, 이동한 거리, 또 이동해야 할 거리를 수시로 설명 드렸습니다. 저는 이 일을 떠올리면 한국인 물류 업계 종사자 중 베트남 전체 도로 사정을 파악한 건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걸 지도에 특이사항까지 다 표시해가며 공부했던 경험으로 인해 운 좋게도 도로사정을 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사건이 가장 위기였는데, 그 이후 업계에서는 'PTV는 약속된 요청사항은 어떻게든 책임 저준다' 라는 소문이 나 명성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신규투자 진출기업들의 경우 기계 설치를 빨리 마쳐야 생산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신규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위기였지만 그 사건 이후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PTV 회장, 코참 중남부지역 연합회장, 또 바쁜 와중에 한국 국제학교 이사장 직까지 겸하고 계시는데요. 쉬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시는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한테 화두는 항상 다음 세대였습니다. 제가 옥타를 처음 시작할 때 차세대 무역스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유로 소영현 회장님과 함께 옥타 재창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를 하는 것도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고, 코참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공약으로 걸고 시행 완료한 내용이 청년 기업가 협의회 창립입니다. 창립 이유는 베트남에 현재 2세 경영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에게 외로움을 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편한자리에서 2세 경영인들을 얘기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아버지 사업 잘 물려받으면 된다고 하고, 저 또한 10여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로벌 기업인들의 네트워크 모임인 YBLN(Young Business Leaders Network)을 갔다가 느낀 것이 '아, 2세 경영인이 창업자보다 훨씬 더 힘들구나' 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자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만들어 나가도 되고 그 모든 책임도 본인이 지면 끝인데, 2세 경영인들은 아버지 눈치, 아버지 창업 동지들 눈치, 경영성과 창출, 또, 자기만족도 해야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니 2세 경영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실적을 내고, 평가를 받는다는 게 창업자 보다 몇 배 이상 힘든 자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세 기업가들만의 공감대를 만들어 그 사람들이 베트남에 착근해야 베트남 전체 한인 교민 경제들도 착근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벤처기업을 포함해 많은 2030대 기업인들이 베트남에 들어와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여기가 재미있는 곳이 되고, 살만한 곳이 돼야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하게 하는 얘기지만 물고기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어렵다고 내가 여기서 오늘 잘 살아줘야 저한테 가장 기준인 제 아이가 잘 사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구가 "불파만 지파참(不怕慢,只怕站)"입니다. 내가 느리게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멈춰 있는 걸 두려워하라는 뜻으로 내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면 됩니다. 내 눈앞에 건물이 생겨야 되고, 내 눈앞에 몇 백억이 생겨야 되고, 그런 결과만 보는 욕심을 버리고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코참, 학교, 그리고 옥타 차세대도 그런 것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 주면 되는 거라는 목표 아래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기진출 및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에게 선배 기업가 및 코참회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류 회사를 하다 보니 많은 투자 기업들을 만납니다. 신규 기업들만 적어도 600개 이상은 만났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 눈에 일부 한국 기업들 중 좀 건방지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2부류로 나뉘어지는데 첫번째 부류는 베트남에 첫 방문이고,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 사업 내용은 베트남 시장성에 맞아 보이는지, 투자함에 있어서 조언 해주실 내용이 있는지 등 이것저것 세심하게 여쭙 보시는 부류이고, 두번째 부류는 베트남을 며칠 지내보니 내가 지내온 2-30년전 한국과 똑같고,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며 물류나 잘 해결해 달라는 부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번째 부류의 사업가들이 베트남에 오래 남아 계신 것을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존중하려고 하고, 어려워하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하나씩 찾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룡런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과 베트남 문화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더 탄탄하게 갑니다. 근데 두번째 부류들은 본인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트남 직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베트남 법률이 있는데 베트남 법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무시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부정으로 시작하여 자리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서, 문화, 법률 상황, 정치 상황 등에 존중이 가장 먼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겸손함과 존중이 있어야 현지화를 빨리하고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출 예정 기업인들한테는 부디 오시면 제발 베트남 사람들과 그 문화를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가적으로 진출하신 분들에게도 말씀 드리자면 결국 우리는 여기에 돈 벌러 왔고 베트남 사람, 베트남 정부, 베트남이라는 기회의 땅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었을 것이며, 우리가 이 땅 덕분에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 이 나라 사람들과 이 땅을 위해서 조금 더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함과 그에 대한 보답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



베트남 노동법상 수습계약 및 유의사항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bhsjun@jplawvn.com | (84-4) 3724 5201~3

1. 베트남 노동법상 수습계약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계약의 이전에 수습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노동법상 계약 기간 중 직원의 해고가 쉽지 아니하기에 많은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수습계약을 통해 해당 직원의 업무를 평가하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 노동법상 수습계약 기간은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성, 기술 수준이 필요한 직무 직위에 대해서는 최대 60일, 중급 전문성, 기술 수준이 필요한 업무, 기술직원, 업무 사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 6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노동법 제25조) 그리고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소 합의된 급여의 85%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법 제26조)

2. 수습계약 종료시 유의할 점

베트남 노동법은 수습계약 중 사용자 또는 근로자 일방은 기 체결한 노동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고,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으며 배상할 필요도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제27조 2항) 즉, 수습계약 중에는 어떠한 사전 통지 없이 수습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매우 유연한 계약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계약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체결하지 않을지는 어느정도 이전에 통보해야 할까요? 노동법상 그 통보기간은 수습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으로 규정되어 있어(노동법 제27조 1항), 사전 통지 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이에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습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수습계약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수습계약 종료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지는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3. 수습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베트남 노동법 제27조 1항은 수습기간 중 근로능력이 요구 수준에 도달한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을 지속 이행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 종료 및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간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 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한국인 등 외국인 고용 시 수습계약 체결

한국인 등 외국인을 베트남 법인에서 고용하는 경우 수습계약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노동법 제151조 및 제152조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앞서 외국인 고용계획 승인과 워크퍼밋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습계약 또한 근로 계약의 일부로서 워크퍼밋 발급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워크퍼밋 없이 수습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워크퍼밋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안되기에 수습계약조차 체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습계약 체결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만일 이를 간과하고 워크퍼밋 발급 없이 수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워크퍼밋 없는 외국인 불법 고용에 해당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양 측 모두 행정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인 근로자의 베트남 수습계약 체결은 가능하나, 사전에 외국인 고용계획 승인 및 워크퍼밋 발급 이후에 가능하므로, 실무상 이러한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기하고 수습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끝>



외국중재기관의 중재판정, 베트남에서 집행은 가능할까?

대한상사중재원 하노이사무소 유하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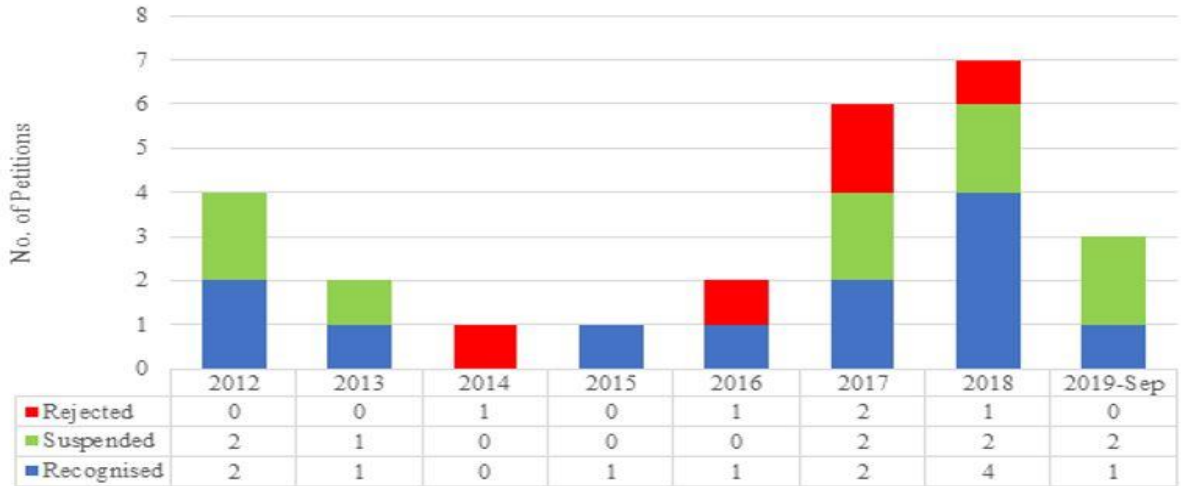
대한민국이나 싱가포르 중재기관에서 받은 중재 판정을 받으면, 베트남에서 집행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바로 베트남이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뉴욕협약은 각국의 상사중재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각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정에 대해 그 승인과 집행을 보장해주기 위해 UN 주도하에 성립된 다자간 조약입니다. 뉴욕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상대국가와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는 외국중재판정에 대해 승인과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법원은 여러가지 확실하지 않은 이유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해왔고, 이는 국제사회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문제는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장경제로 변화하면서 외국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베트남은 중재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에는 상사중재법을 제정하였고, 중재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에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 7부에서 ‘베트남에서 승인 및 집행 절차 또는 민사법원 또는 외국법원의 판결; 대외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서 규율하고, 특히 제 17장에서 베트남에서 대외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검토 절차에 대해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59조에서는 외국중재기관의 중재판정에 대해 “불승인사유”를 기술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83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약 41(약41%)개의 중재판정이 승인되었고, 30개(36%)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ykvn-law.com/foreign-court-judgments-and-arbitral-awards-in-vietnam/>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 2015년을 기점으로 점점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승인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중재판정은 베트남에서 집행력이 없다는 것은 2015년 이전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베트남 진출기업들의 분쟁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고 해외진출에 힘을 싣기 위해 하노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베트남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거부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



베트남 통관 HOT 뉴스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 베트남 관세총국 내국수출입 조항 보완, 수정 관련 제안 >

베트남 관세총국은 2023년 5월 29일자 제2588/TCHQ-GSQL자 공문으로 베트남 Le Minh Khai 부총리의 재무부에 대한 내국수출입 관련 규정 시행 평가 및 관련 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 지시에 대한 보고서 및 내국 수출입 관련 규정 보완 및 수정에 대한 초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내국 수출, 수입이란 물품이 베트남 국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도 관세법 상 수출입 신고 절차 이행을 하는 경우로써, 08/2015/ND-CP호 35조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의 경우에 내국수출입 신고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베트남에서 가공 의뢰된 물품으로 가공을 의뢰한 외국 단체나 개인이 베트남에서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판매되는 것
- b) 국내 기업과 수출가공기업 또는 비 관세 구역 내 기업 간에 거래되는 물품
- c)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가 없는 외국 상인이나 개인 간에 거래 되는 물품으로 외국 상인이 해당 물품을 베트남 내 다른 기업에 배송 및 수령하도록 지정한 것.

이러한 내국수출입 조항에 대하여 베트남 관세총국은 08/2015/ND-CP 제 35조 1항의 전체 폐지에 대한 초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폐지의 이유로는 해당 시행령 상의 내국수출입의 개념은 물품의 국경 이동이 없는 것이기에 상법, 대외무역관리법, 수출입세법 등의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다만 위의 3가지 내국수출입 개념 중 A)와 B)의 경우, 상법 규정 및 관세법 시행 규칙 상의 상응하는 조항으로 전환 규정할 것이며, 완전 삭제는 C)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초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의 경우 상법 제 181조와 제 182조의 임가공 위탁자 및 임가공 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조항에서 임가공 계약 청산 이후 임가공 물품, 대여된 기계, 장비에 대해 국내에서 판매, 폐기, 선물, 증여 등이 가능 하다는 조항으로의 대체를, B)의 EPE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거래의 경우, 비관세 구역과의 거래이기에 일반적인 수출입 거래로 간주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의 경우는 물품의 베트남 이동에 대해 완전한 국내 거래의 성질을 가지는 거래로 보아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 수출입 절차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및 그 관리를 국내 세무 관리 기관에서 이행하는 부분, 해당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 상인 및 개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방안 보완 및 송금 절차에서의 은행 제출 서류 조항 보완 등의 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 수출입 조항, 특히 C)의 조항의 경우 베트남 진출기업들 간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던 제도로써, C)의 조항이 삭제되는 경우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 부가세 납부 및 환급 절차로의 전환 등 절차적,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세총국은 이러한 폐지 제안에 대한 의견 수립 과정 중으로, 추가적인 개정 방향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및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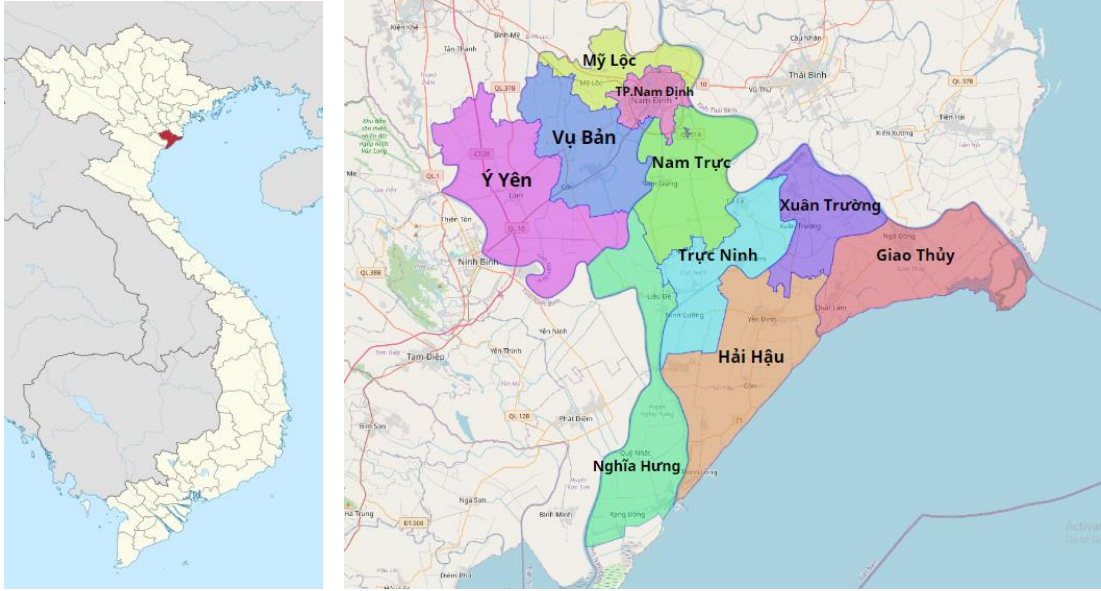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 - 남딘성

□ 남딘(Nam Dinh)성 기본정보

| 구분 | 내용 |
|--------------------------|--|
| 면적-인구('2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1,668km² ▪ 인구: 1,850,000명 • 도시거주 비율: 20.24% |
| 지정학적 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딘성은 홍강 삼각주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남딘성은 북쪽으로는 타이빈(Thai Binh)성, 서북쪽으로는 하남(Ha Nam)성, 서남쪽으로는 남딘(Ninh Binh)성, 동쪽으로는 동해와 인접해 있음 • 남딘성은 하노이시에서 약 90km 떨어져 있음 |
| 접근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10번 국도, 21번 국도, 21B 국도, 37B 국도, 38B 국도, 하노이-닌빈 고속도로 • 철도: 북-남 철도 • 수로: 홍(Hong)강, 다오(Dao)강, 다이(Day)강, 닝꺼(Ninh Co)강 |
| GRDP 성장률 / 1인당 GDP('2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GDP 성장률: 9.07% • 성 1인당 GDP: US 2,130달러/년 |
|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출액: US 30억 달러 / 총 수입액: US 15.2억 달러 •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13.11%), 서비스업(7.47%), 농수산업(3.9%) |
| 산업구조('2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건설업: 42.65%, 서비스업: 34.78%, 농수산업: 19.39% |
| 노무여건('2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57.6% • 노동가능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75.5% •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23.3% |
| 최저임금('2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딘시, 미록(My Loc) 현: VND4,160,000= US180 달러(2급지) • 타 지역: VND3,640,000= US158 달러(3급지) |
| 외국인투자 ('22.12월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딘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129개 프로젝트, 37억 달러 • (한국) 남딘성 내 한국투자는 총 26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2.7억 달러 규모 |



□ 투자환경



남딘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 시스템

(도로) 남딘성의 간선도로들은 국가의 교통 시스템(10번 국도, 21번 국도, 21B 국도, 37B 국도, 38B 국도, 하노이-닌빈 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남딘성은 사회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도로에 대한 투자계획을 제출 및 정부의 승인을 받음

- 북-남 고속도로와 남딘성의 해양 경제구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 고속도로 닌빈(Ninh Binh) – 하이퐁(Hai Phong) – 꽝닌(Quang Ninh)
- 해안 도로

(철도) 북-남 철도가 남딘성을 관통하는 구간은 42km로, 특히 승객 및 화물 운송에 편리함

(수로) 해안선 길이 72km의 남딘성 강은 홍(Hong)강, 다오(Dao)강, 다이(Day)강, 닝꺼(Ninh Co)강 등 4개의 국립 강으로 구성됨. 이 4개의 강이 남딘성을 관통하는 구간의 총 길이는 251km이며, 279km의 지역 강과 함께 고르게 분포된 수로 시스템을 형성하여 운송을 원활하게 지원함

(항만) 현재 남딘성의 주요 항구

- 남딘 항구: 다오(Dao)강의 오른쪽 강둑을 따라 500m 길이의 부두가 있으며, 6~7m의 수심, 처리 능력이 연간 20만 톤인 항구
- 하이틴(Hai Thinh) 항구: 닝꺼(Ninh Co)강의 어귀에 200m 길이의 2개 부두가 있으며, 900m²의 폐쇄형 창고, 5.5ha의 하역장이 있어 400~2,000톤의 선박이 적재 및 하역을 위해 정박할 수 있음. 항구 처리 능력은 연간 300만 톤이며 연간 450만 톤의 일반상업항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됨



- 닝꺼(Ninh Co) 폭풍 대피소와 결합된 어항: 폭풍을 피하기 위해 1,000척의 선박을 보장함
- 하란(Ha Lan) 폭풍 대피소와 결합된 어항: 폭풍을 피하기 위해 최대 용량이 200CV의 선박 1,000척을 보장함

(항공) 남딘시는 노이바이(Noi Bai) 공항에서 약 120km 떨어져 있음

○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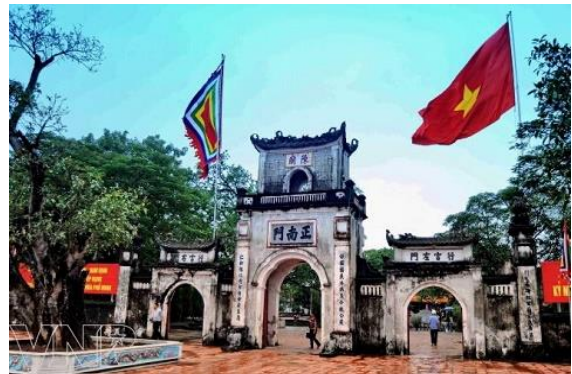
남딘성에는 약 1,655개의 역사·문화 유적지가 있으며, 그 중, 74개는 국립 유적지이며 194개는 성급 유적지임. 쩐(Tran) 왕조 사원 단지, 다이(Day) 관저, 꼬레(Co Le) 파고다 등 많은 유적지는 국가 정체성이 깃든 전통 축제와 관련된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또한 남딘성은 70개 이상의 공예 마을이 있으며, 그 중 라수옌(La Xuyen) 목각 마을, 깃당(Cat Dang) 칠기 마을, 퉁사(Tong Xa) 청동 주조 마을, 빈하오(Vinh Hao) 죽세공 및 등세공 마을, 꼬젯(Co Chat) 실크 마을, 비케(Vi Khe) 분재 마을 등이 유명함.

남딘성은 72km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어 퉁롱(Thin Long), 껏람(Quat Lam), 쓰엉디옌(Xuong Dien)과 같은 매력적인 해변 휴양지로 개발하고 건설하였음. 특히 맹그로브 생태계를 보유한 쑤언투이(Xuan Thuy) 국립공원은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최초의 국제 람사르 보호지역으로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아 많은 국내외 관광객, 과학자, 학생들이 찾는 생태관광지임.



쑤언투이(Xuan Thuy) 국립공원



쩐(Tran) 왕조 사원 단지



꼬젯(Co Chat) 실크 마을



쓰엉디옌(Xuong Dien) 해변



남딘성의 해변 관광지는 유명한 문화·역사 유적지와 연결되어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통합 투어를 구성할 수 있음. 랑동(Rang Dong) 해변 지역은 또한 닝꺼(Ninh Co) 경제구역의 개발 계획에 속할 해변 휴양지 및 생태관광지역을 형성하기 위한 인프라에 투자되고 있음.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법인 소득세 및 토지세): 현행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음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 투자지역 | 법인세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
|--|---|--|
| 투자우대지역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및 산업 클러스터 • 자우투이(Giao Thuy) 현, 쑤안즈엉(Xuan Truong) 현, 하이하우(Hai Hau) 현, 응이아흥(Nghia Hung) 현 | • 기본 세율 20% • 첫 10년간 세율 17%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 •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 특별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5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없는 프로젝트: 7년간 계속 면제 |

-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D-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 투자 유망분야

- 하이테크 산업, 하이테크 농업
- 전기, 전자
- 기계, 제조 지원산업
- 환경친화적인 산업
- 가공 산업
- 산업단지 인프라
- 교육 및 훈련
-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노동력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FDI) (2022.12월말 기준)

총 129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37억 달러가 투자 등록됨

○ 남단성 10대 FDI 프로젝트

| 순번 | 프로젝트명 | 내용 | 투자국 | 투자금액 (US 달러) |
|----|---|---------------|------|-----------------|
| 1 | Nam Dinh BOT 화력 발전소 1 | 전기 생성 및 분배 | 싱가포르 | 2,072,200,000 |
| 2 | Top Textiles Co., Ltd | 직물 | 홍콩 | 203,000,000 |
| 3 | Sunrise Viet Nam Textile Joint Stock Company | 직물 | 중국 | 122,398,000 |
| 4 | TCE Vina Denim Joint Stock Company | 직물 | 한국 | 85,186,277 |
| 5 | Bao Minh Textile Joint Stock Company | 직물 | 대만 | 84,893,698 |
| 6 | Ramatex Industrial (Nam Dinh) Company Limited | 직물 | 싱가포르 | 80,000,000 |
| 7 | Yulun (Vietnam) Spinning, Weaving, Dyeing Company Limited | 직물 | 중국 | 68,000,000 |
| 8 | D.Fzin Company Limited | 의류 생산 | 한국 | 62,900,000 |
| 9 | Bunda Footwear | 가죽 및 관련 제품 생산 | 홍콩 | 50,000,000 |
| 10 | 남측(Nam Truc) 현에서의 수출용 신발 생산 공장 | 가죽 및 관련 제품 생산 | 홍콩 | 47,500,000 |

○ 한국계 투자 (2022.12월말 기준)

남단성 한국투자는 26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2.7억 달러가 등록됨

○ 남단성 내 TOP 한국 투자 프로젝트

| 순번 | 프로젝트명 | 내용 | 위치 | 투자금액 (US 달러) |
|----|--|-------|--------------------------------|-----------------|
| 1 | TCE Vina Denim Joint Stock Company | 직물 | 호아사(Hoa Xa) 공단 | 85,186,277 |
| 2 | D.Fzin Company Limited | 의류 생산 | 호아사(Hoa Xa) 공단 | 62,900,000 |
| 3 | Sungnam Knitting Mills Company Limited | 직물 | 호아사(Hoa Xa) 공단 | 25,000,000 |
| 4 | PIM Vina Company Limited | 부품 제조 | 미중(My Trung) 공단 | 22,000,000 |
| 5 | 의류 생산 공장 | 의류 생산 | 남측(Nam Truc) 현 동선(Dong Son) 마을 | 20,778,000 |



□ 공단 현황

○ 공단/클러스터 정보

| 순번 | 공단명 | 설립년도 | 면적 (ha) | 주요 정보 | 인프라 개발사 |
|----|-------------------|------|---------|--|---|
| 1 | 호아사 (Hoa Xa) | 2003 | 285.3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남딘시 • 입주율: 100% • 임대료: 65USD/m² • 투자 유치 분야: 제약, 섬유업 지원산업, 기계 공학, 전기, 전자 등 | Nam Dinh Province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dustrial Park Investment Consulting Center |
| 2 | 바오밍 (Bao Minh) | 2015 | 148.5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반(Vu Ban) 현 리엔밍(Lien Minh) 마을 • 입주율: 100% • 임대료: 60USD/m² • 투자 유치 분야: 기계 가공, 방직, 섬유, 염색, 의류, 전기, 전자, 제약, 식품 가공, 목재 가공 및 인쇄, 포장 인쇄 등 | Bao Minh Industrial Parks Infrastructure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https://baominhip.com) |
| 3 | 랑동 (Rang Dong) | 2015 | 5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응이아흥(Nghia Hung) 현 랑동(Rang Dong) 군 • 입주율: 10.63% • 임대료: 60USD/m² • 투자 유치 분야: 의류, 가죽 제품, 가방, 방직, 직조 - 인쇄 - 염색, 제조업 지원산업, 사무 서비스 등 | Rang Dong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Development Joint Stock Company (https://auroraip.vn) |
| 4 | 미투언 (My Thuan) | 2021 | 158.6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록(My Loc) 현 및 부반(Vu Ban) 현 • 인프라 건설 중 | Dai Phong Joint Stock Company |
| 5 | 확장 바오밍 (Bao Minh) | 2021 | 44.6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반(Vu Ban) 현 • 인프라 건설 중 | Bao Minh Industrial Parks Infrastructure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

□ 남딘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 기관명 | 담당자 | 연락처/이메일 |
|-----------------------------|----------------------------|------------------------|
| 남딘성 공공행정서비스, 투자 촉진 및 사업지원센터 | Mr. Nguyen Van Tung 센터장 | • Tel: +84-912 273 375 |

<끝>



베트남 일촌일품(OCOP) 활용 CSR 참여방안

KOTRA

‘일촌일품’의 의미를 지닌 OCOP(One Commune One Product) 정책은 지역을 대표하는 원자재 혹은 1차 상품에 해당 지역의 전문성을 더하여 개발한 특산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다. 베트남 외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영세 농가·가계의 소득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63곳의 성·시를 보유한 베트남에서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OCOP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품질, 시장성, 수출 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 국가 차원의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정부별로 자금조달 지원에서 수출마케팅 지원까지 여러 정책을 통해 OCOP 제품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OCOP는 지역 특산품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확대,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속가능성장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즉 CSR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성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는 있으나 OCOP 제품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수산물, 과일·야채, 곡물, 수공업품 등의 품질을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장비·도구, 기술, 제도 및 시스템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의 생산공장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임에도 현지 중소·영세기업의 생산·제조 역량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단순 조립·생산에서 한 차원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가치 창출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는 물론 산업경쟁력 전반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민간 부문의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미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이를 모색중인 한국 기업에게 OCOP는 사회공헌활동, 즉 CSR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대표 상품인 각종 농산물, 과일·야채, 곡물 등에 대한 가공분야 지원, OCOP 제품의 품질 유지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콜드체인 구축, 나아가 농수산물을 전문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전문도매시장 건설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시장 수요와 CSR을 접목시킨다면 국가 및 기업브랜드 제고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일촌일품(OCOP) 활용 CSR 참여방안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 내 보고서-심층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 구분 국가명 | 1988. 1. 1~2023. 5. 20 기준 누계 | | 2023. 1. 1 ~ 5. 20 | | |
|--------------|------------------------------|-------------------|--------------------|-----------------|------------------------|
| | 건수 | 투자금액 | 신규건수 | 신규투자금액 | 총투자금액 |
| 한국 | 9,666 | 81,557.19 | 167 | 212.67 | 666.52 |
| 싱가포르 | 3,240 | 73,384.06 | 128 | 1,732.80 | 2,534.48 |
| 일본 | 5,091 | 69,628.34 | 108 | 317.66 | 2,072.06 |
| 대만 | 2,974 | 37,218.22 | 64 | 499.85 | 779.36 |
| 홍콩 | 2,246 | 30,154.29 | 83 | 552.34 | 653.95 |
| 중국 | 3,720 | 24,877.38 | 156 | 1,086.23 | 1,608.16 |
| 버진아일랜드(영) | 900 | 22,682.04 | 11 | 12.9 | 70.16 |
| 네덜란드 | 426 | 14,112.65 | 11 | 190.14 | 601.76 |
| 태국 | 694 | 13,169.73 | 13 | 39.38 | 90.42 |
| 말레이시아 | 718 | 13,072.68 | 13 | 1.24 | 6.91 |
| 미국 | 1,259 | 11,722.39 | 41 | 18.55 | 375.42 |
| 기타 | 6,304 | 56,080.44 | 167 | 597.62 | 1,397 |
| 전체 합계 | 37,238 | 447,659.45 | 962 | 5,261.37 | 10,856.30(-7.3) |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 연번 | 구분 산업 | 2023. 5. 20 기준 누계 | | 2023. 1. 1 ~ 5. 20 | | |
|----|------------------|-------------------|-------------------|--------------------|-----------------|------------------------|
| | | 건수 | 투자금액 | 신규건수 | 신규투자금액 | 총투자금액 |
| 1 | 제조, 가공 | 16,194 | 266,918.90 | 284 | 4,427.81 | 6,643.52 |
| 2 | 부동산 경영 | 1,099 | 67,128.50 | 24 | 395.95 | 1,157.73 |
| 3 |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 190 | 38,320.66 | 6 | 7.35 | 28.5 |
| 4 | 호텔, 외식서비스 | 954 | 12,727.36 | 27 | 3.17 | 31.24 |
| 5 | 건설 | 1,799 | 11,097.69 | 15 | 62.19 | 124.6 |
| 6 | 도소매, 유지보수 | 6,412 | 10,584.63 | 267 | 119.01 | 423.48 |
| 7 | 물류운수 | 1,028 | 6,261.66 | 39 | 145.08 | 206.1 |
| 8 | 과학기술, 전문활동 | 4,279 | 5,284.69 | 145 | 60.07 | 480.93 |
| 9 | 정보통신 | 2,798 | 5,077.03 | 102 | 15.55 | 183.51 |
| 10 | 채광 | 108 | 4,894.57 | 0 | 0 | 0.2 |
| 11 | 교육, 양성 | 652 | 4,596.35 | 25 | 5.99 | 11.43 |
| 12 | 농, 임, 수산 | 529 | 3,860.69 | 6 | 11.3 | 8.56 |
| 13 | 예술 오락 | 141 | 3,423.20 | 1 | 4.6 | 7.26 |
| 14 |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 83 | 3,042.47 | 0 | 0 | 0 |
| 15 | 의료와 사회복지 | 153 | 1,748.79 | 0 | 0 | 0.41 |
| 16 | 행정, 지원 서비스 | 575 | 1,036.74 | 14 | 2.52 | 13.79 |
| 17 | 금융, 은행, 보험 | 90 | 920.77 | 5 | 0.62 | 1,534.14 |
| 18 | 기타 서비스 | 147 | 723.68 | 2 | 0.17 | 0.92 |
| 19 | 가구내 고용활동 | 7 | 11.07 | - | - | - |
| | 합 계 | 37,238 | 447,659.45 | 962 | 5,261.38 | 10,856.30(-7.3) |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5(누계) |
|------|---------|---------|-------|----------------|
| 수 출 | 2,826.5 | 3,363.1 | 3,713 | 1,352.2(-12.3) |
| 수 입 | 2,627 | 3,322.3 | 3,389 | 1,255.6(-18.4) |
| 무역수지 | 199.5 | 40.8 | 324 | 96.6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 품 목 명 | 2020 | 2021 | 2022 | 2023.5(누계) |
|-------------|---------|---------|---------|----------------|
|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51,183 | 57,537 | 57,994 | 20,191(-19.9) |
|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 44,576 | 50,828 | 55,536 | 20,511(-9.0) |
| 기계/플랜트 및 부품 | 27,193 | 38,344 | 45,751 | 16,478(-5.6) |
| 섬유/직물제품 | 29,809 | 32,753 | 37,566 | 12,649(-15.6) |
| 신발류 | 16,791 | 17,751 | 23,895 | 8,051(-14.7) |
| 원목 및 목제품 | 12,371 | 14,809 | 16,011 | 4,960(-29.4) |
| 철강제품 | 5,258 | 11,795 | 7,993 | 1,698(-15.8) |
| 수송수단 및 부품 | 9,090 | 10,616 | 11,988 | 5,497(13.9) |
| 수산물 | 8,412 | 8,886 | 10,923 | 3,379(-27.9) |
| 원사(Yarn) | 3,736 | 5,612 | 4,713 | 1,688(-28.8) |
| 기 타 | 74,235 | 87,379 | 98,934 | 40,118 |
| 합 계 | 282,654 | 336,310 | 371,304 | 135,220(-12.3)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 품 목 명 | 2020 | 2021 | 2022 | 2023.5(누계) |
|-------------|---------|---------|---------|----------------|
| 전자제품 및 컴퓨터 | 63,971 | 75,440 | 81,884 | 31,569(-13.5) |
| 기계/플랜트 및 부품 | 37,251 | 46,296 | 45,192 | 16,071(-13.0) |
|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16,645 | 21,434 | 21,126 | 3,000(-66.2) |
| 의류(원단) | 11,875 | 14,324 | 14,706 | 5,330(-19.9) |
| 플라스틱 원료 | 8,397 | 11,685 | 12,387 | 3,845(-32.1) |
| 각종 철강 | 8,066 | 11,523 | 11,920 | 3,934(-29.7) |
| 기타 비금속 | 6,052 | 8,611 | 9,253 | 3,167(-24.1) |
| 플라스틱 제품 | 7,274 | 7,959 | 8,119 | 2,892(-15.1) |
| 화학제품 | 5,741 | 7,627 | 9,144 | 3,053(-18.8) |
| 화학물질 | 5,016 | 7,735 | 8,747 | 3,208(-23.9) |
| 기 타 | 92,412 | 119,600 | 136,423 | 49,499 |
| 합 계 | 262,700 | 332,234 | 358,901 | 125,568(-18.4)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 순번 | 국가명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5(누계) |
|----------|-----------|----------------|----------------|----------------|----------------|-----------------------|
| 1 | 미국 | 61,347 | 77,077 | 96,293 | 109,388 | 36,317 |
| 2 | 중국 | 41,414 | 48,905 | 56,009 | 57,702 | 20,347 |
| 3 | 한국 | 19,720 | 19,107 | 21,945 | 24,293 | 9,192 |
| 4 | 일본 | 20,413 | 19,284 | 20,128 | 24,232 | 9,111 |
| 5 | 홍콩 | 7,156 | 10,437 | 11,996 | 10,936 | 3,387 |
| 6 | 네덜란드 | 6,881 | 6,999 | 7,686 | 10,430 | 3,987 |
| 7 | 독일 | 6,555 | 6,644 | 7,286 | 8,968 | 3,104 |
| 8 | 인도 | 6,674 | 5,235 | 6,259 | 7,961 | 3,296 |
| 9 | 태국 | 5,272 | 4,917 | 6,161 | 7,476 | 3,017 |
| 10 | 영국 | 5,758 | 4,955 | 5,765 | 6,065 | 2,359 |
| | 기타 | 82,999 | 79,094 | 96,782 | 103,853 | 41,103 |
| | 합계 | 264,189 | 282,654 | 336,310 | 371,304 | 135,220(-12.3)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 순번 | 국가명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5(누계) |
|----------|-----------|----------------|----------------|----------------|----------------|-----------------------|
| 1 | 중국 | 75,452 | 84,187 | 109,874 | 117,866 | 41,194 |
| 2 | 한국 | 46,935 | 46,895 | 56,155 | 62,088 | 20,119 |
| 3 | 대만 | 15,173 | 16,701 | 20,772 | 22,631 | 7,380 |
| 4 | 일본 | 19,526 | 20,341 | 22,648 | 23,373 | 8,350 |
| 5 | 미국 | 14,365 | 13,713 | 15,270 | 14,470 | 5,651 |
| 6 | 태국 | 11,656 | 10,968 | 12,564 | 14,092 | 4,844 |
| 7 | 오스트레일리아 | 4,456 | 4,677 | 7,946 | 10,144 | 3,461 |
| 8 | 말레이시아 | 7,291 | 6,575 | 8,148 | 9,124 | 2,986 |
| 9 | 인도네시아 | 5,703 | 5,382 | 7,587 | 9,641 | 3,363 |
| 10 | 인도 | 4,538 | 4,435 | 6,950 | 7,086 | 2,702 |
| | 기타 | 47,975 | 48,826 | 64,320 | 68,386 | 25,518 |
| | 합계 | 253,070 | 262,700 | 332,234 | 358,901 | 125,568(-18.4)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5(누계) |
|------|--------------|--------------|--------------|--------------|---------------|
| 수출 | 48,178(-0.9) | 48,510(0.7) | 56,729(16.9) | 60,972(7.5) | 20,546(-24.0) |
| 수입 | 21,071(7.3) | 20,579(-2.3) | 23,965(16.5) | 26,726(11.5) | 10,593(-8.1) |
| 무역수지 | 27,107 | 27,931 | 32,763 | 34,246 | 9,953 |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 품목명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5(누계) |
|--------------|--------------|--------------|--------------|--------------|---------------|
| 반도체 | 10,730(-1.9) | 11,501(7.2) | 14,026(22) | 16,240(15.8) | 4,804(-30.9) |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7,970(-10.5) | 9,552(19.9) | 12,050(26.1) | 12,527(4.0) | 4,093(-19.1) |
| 석유제품 | 2,196(11.2) | 1,196(-45.5) | 1,157(-3.2) | 3,733(222.3) | 1,450(-22.9) |
| 무선통신기기 | 2,932(11.4) | 3,460(18) | 3,315(-4.2) | 2,358(-29.2) | 901(-15.8) |
| 합성수지 | 1,624(-2.1) | 1,615(-0.6) | 2,415(49.5) | 2,581(6.9) | 769(-40.2) |
| 기구부품 | 2,230(-4.4) | 2,241(0.5) | 2,405(7.3) | 2,194(-8.8) | 704(29.7) |
| 플라스틱 제품 | 1,210(0.4) | 1,115(-7.8) | 1,174(5.3) | 1,067(-9.2) | 381(-18.0) |
| 철강판 | 1,157(10.4) | 1,052(-9.1) | 1,267(20.4) | 1,069(-15.6) | 356(-31.6) |
| 계측제어분석기 | 783(12.4) | 669(-14.5) | 957(43.0) | 793(-17.1) | 355(-5.2) |
| 자동차부품 | 668(40.9) | 673(0.8) | 924(37.3) | 1,168(26.4) | 346(-29.2) |
| 기타 | 16,678 | 15,437 | 17,039 | 17,242 | 6,387 |
| 합계 | 48,178(-0.9) | 48,511(0.7) | 56,729(16.9) | 60,972(7.5) | 20,546(-24.0) |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 품목명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5(누계) |
|--------------|-------------|--------------|--------------|--------------|--------------|
| 무선통신기기 | 5,691(17.6) | 4,980(-12.5) | 5,579(12) | 5,986(7.3) | 1,806(-36.5) |
| 의류 | 3,646(2.1) | 3,145(-13.7) | 3,393(7.9) | 3,840(13.2) | 1,394(-1.1) |
| 컴퓨터 | 679(25.9) | 1,270(87.1) | 1,659(30.6) | 1,948(19.1) | 996(3.2) |
| 반도체 | 471(19.1) | 561(18.9) | 750(33.8) | 787(5.0) | 656(115.0) |
| 산업용 전기기기 | 479(14.8) | 574(20) | 725(26.2) | 970(33.8) | 544(42.3) |
| 신변잡화 | 1,053(7.4) | 1,029(-2.2) | 984(-4.4) | 1,250(27.2) | 543(6.7) |
| 목재류 | 657(-17.1) | 632(-3.9) | 755(19.5) | 942(24.8) | 337(-16.8) |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1,197(5.2) | 1,027(-14.2) | 876(-14.7) | 783(-10.5) | 259(-21.6) |
| 기구부품 | 512(15.1) | 481(-5.9) | 624(29.6) | 654(4.8) | 204(-26.7) |
| 영상기기 | 356(-2) | 406(14) | 460(13.2) | 463(0.7) | 181(-21.2) |
| 기타 | 6,331 | 6,474 | 8,161 | 9,103 | 3,673 |
| 합계 | 21,072(7.3) | 20,579(-2.3) | 23,966(16.5) | 26,726(11.5) | 10,593(-8.1) |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2~2023년 주요 경제지표 >

| 구분 | 시기 | 단위 | 국가 | | | | | |
|--------|----------------------|-----------|------|-------|-------|-------|-------|-----------|
| | | | 싱가포르 | 필리핀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
| GDP증가율 | 2022년(연간) | % | 3.6 | 7.6 | 8.7 | 5.3 | 8.0 | |
| | 2022년 4Q | % | 2.1 | 7.1 | 7.0 | 5.0 | 5.9 | |
| | 2023년 1Q | % | 0.1 | 6.4 | 5.6 | 5.0 | 3.3 | |
| 생산 |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 2022년(연간) | - | 124.9 | N/A | 126.2 | N/A | 7.8% |
| | | 2023년 3월 | - | 118.5 | 16.0 | 130.6 | N/A | △1.6% |
| | | 2023년 4월 | - | 119.3 | 9.0 | 116.5 | N/A | 0.5% |
| | 구매관리자지수 (PMI) | 2022년(연간) | - | N/A | N/A | 50.0 | N/A | N/A |
| | | 2023년 3월 | - | 49.9 | 52.5 | 48.8 | 51.9 | 47.7 |
| | | 2023년 4월 | - | 49.7 | 51.4 | 48.8 | 52.7 | 46.7 |
| 소비 | 소비자동향지수 | 2022년(연간) | - | 108.4 | N/A | 100.5 | 119.9 | N/A |
| | | 2023년 3월 | - | 112.6 | N/A | N/A | 123.3 | N/A |
| | | 2023년 4월 | - | 112.7 | N/A | N/A | 126.1 | N/A |
| | 소매판매 | 2022년(연간) | - | 100.3 | 4.5% | 161.5 | 6.2% | 19.8% |
| | | 2023년 3월 | - | 103.6 | 6.0% | 168.6 | 4.9% | 13.4% |
| | | 2023년 4월 | - | N/A | 5.4% | 173.1 | 1.5% | 11.5% |
| |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 2022년(연간) | % | 6.1 | 5.8 | 3.3 | 4.2 | 3.2 |
| | | 2023년 3월 | % | 5.5 | 8.6 | 3.4 | 5.0 | 3.4 |
| | | 2023년 4월 | % | 5.1 | 7.6 | 3.3 | 4.3 | 2.8 |
| 투자 | 고정자산투자 | 2022년(연간) | % | N/A | N/A | 9.0 | 3.87 | △11.0(누계) |
| | | 2023년 3월 | % | N/A | N/A | 11.5 | N/A | △19.3(누계) |
| | | 2023년 4월 | % | N/A | N/A | 11.5 | N/A | △17.9(누계) |
| 고용 | 실업률 | 2022년(연간) | % | 2.1 | 5.4 | 3.8 | N/A | 2.3 |
| | | 2022년 4Q | % | 2.0 | 4.3 | 3.6 | N/A | 2.3 |
| | | 2023년 1Q | % | 1.8 | 4.8 | 3.5 | 5.5 | 2.3 |
| 무역 | 수출증가율 | 2022년(연간) | % | 15.6 | 14.5 | 25.0 | 26.1 | 7.1 |
| | | 2023년 3월 | % | △6.5 | △9.1 | 1.4 | △11.3 | △14.8 |
| | | 2023년 4월 | % | △18.1 | △20.2 | △17.4 | △29.4 | △17.1 |
| | 수입증가율 | 2022년(연간) | % | 20.1 | 17.3 | 31.3 | 21.0 | 8.6 |
| | | 2023년 3월 | % | △11.0 | △1.2 | △1.8 | △6.3 | △11.1 |
| | | 2023년 4월 | % | △19.5 | △17.7 | △11.1 | △22.3 | △20.5 |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2023년 베트남 온라인 유통망 진출 확대 세미나 개최

1. 추진배경 및 목적

- 급성장세에 있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및 유통 소매 시장에 우리 기업 진출 확대 지원
- 진출 기업 대부분이 오프라인 유통에 취중, 발전하는 온라인 유통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필요

2. 행사 계획(안)

- 일시 / 장소 : '23. 7. 6(목) 14:00~16:45 /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3층
- 개최목적 :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정보 제공을 통한 진출확대 지원
- 협업기관 : 베 산업무역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청(IDEA)/ 코참 베트남
- 주요내용
 - 베트남 정부의 전자상거래 산업현황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 주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 트렌드
 - 베트남 전자상거래 유통 진출을 위한 인허가 등 법률 정보
- 참석 (총 80명)
 - (KOTRA) 이종섭 본부장 / (베) IDEA 부청장, 베 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협회 등
 - (기업) 진출 한국 유통기업, 베트남 온라인 유통 사업 희망 기업 등
- 주요 프로그램 *한-베 순차통역 진행

| 시간 | 내용 | 비고 | |
|-------------|-----|------------------------------|--------------------|
| 13:55~14:00 | 5분 | 행사 안내 및 참석자 소개 | 하노이 무역관 |
| 14:00~14:05 | 5분 | 환영 인사 | 지역본부장 |
| 14:05~14:10 | 5분 | 축사 | IDEA부청장 |
| 14:10~14:35 | 25분 | 베트남 전자상거래 발전상황 및 정부 지원정책 | IDEA |
| 14:35~15:00 | 25분 | 베트남 전자상거래 현황 및 한국기업과의 협력 방안 |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VECOM) |
| 15:00~15:10 | 10분 | Tea Break | - |
| 15:10~15:35 | 25분 | 운영 현황 및 주요 상품홍보 방법 | 전자상거래 기업 (Eshop) |
| 15:35~16:00 | 25분 | 전자상거래용 소비재 통관 시 유의사항 |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
| 16:00~16:25 | 25분 | 베트남 전자상거래 진출을 위한 인허가 등 법률 정보 | 법무법인 아세안 |
| 16:25~16:45 | 20분 | 질의 응답 | 연사자 |
| 16:45 | | 폐회 | |

3. 참가신청

-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QJoZLQ2mC4Z2AFXR9>



한국-일본 투자진출기업 협력 관련 수요조사 실시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KOTRA(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와 KOCHAM에서는 우리 기업과 일본 우수 기업간의 비즈니스 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한 기초 조사로 관련 사항에 대한 귀사의 관심과 수요를 파악하고자 설문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조사 참여 링크: <https://forms.gle/QJoZLQ2mC4Z2AFXR9>



Vietnam-Korea
Business Cooperation Center
PARTNERSHI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저작권자 © KOTRA >